
 국토교통부	<h1>보도참고자료</h1>		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하나된 열정 하나된 대한민국 
	배포일시	2018. 2. 21(수) 총 1매(본문 1)	
담당 부서	건설산업과	담당자	•과장 박병석, 사무관 조태영, 주무관 허동혁 •☎ (044) 201-3542, 3543
보도일시		즉시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	

‘헛다리 짚은 타워크레인 대책…국회 졸속 심의’ 보도 관련

- 한국타워크레인(주)에서 생산된 290HC 기종의 주각부 결함에 따른 사고 위험 지적과 관련하여, 국토부는 해당 기종중 1994년에 제작된 장비의 사고사례(1건, 2014년)를 확인하였으며 사고원인과 제작결함간 상관관계를 조사하여 필요시 시정조치 할 계획입니다.
- 아울러, 작년말 국토부와 고용부가 합동으로 마련한 타워크레인 안전대책은 장비의 제작부터 설치, 검사, 사용 및 해체에 이르기 까지 전 과정에 걸쳐서 안전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로서,
 - 장비 등록관리 및 설비 안전성 강화에 대해서는 국토부가, 건설 현장 작업안전 강화, 설치해체업 등록제 도입, 전문자격 신설 및 작업자 교육 강화는 고용부가 함께 분야별로 법령 개정을 추진 하고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.

< 관련 보도내용 (헤럴드경제, '18.2.20.~2.21.) >

- ◆ 타워크레인 10대중 3대가 불안하다(2.20.)
 - 국내 타워크레인 6,000여대중 약 1,700대(28%)를 차지하는 290HC 기종의 제조결함에도 불구하고, 제조사인 한국타워크레인(주)는 A/S에 소극적
 - 정부의 타워크레인 대책은 장비결함은 무시한 채, 노후장비 규제에만 치중
- ◆ 헛다리 짚은 타워크레인 안전대책…국회, 졸속 심의(2.21.)
 - 20년 이상 노후 타워크레인 사용 제한 등의 내용을 담은 건설기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일부 의원의 보완 필요 의견에도 불구하고, 법안소위 통과
 - 사고의 주요원인인 장비불량, 전문가부족, 교육부실 등에 대한 대책은 없어



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
 건설산업과 조태영 사무관(☎ 044-201-3542)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.